

PA-53

칩가공용 신품종 감자의 씨감자 형태·크기별 가을재배 생장특성박현진^{1*}, 조지홍¹, 장동철¹, 이규빈¹, 천충기¹, 최장규¹, 서진희¹, 조광수¹, 임주성¹, 박영은¹¹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서론]**

가공용 감자의 국내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은 봄재배 작형에 편중되어, 주년생산체계 구축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해 가을재배 면적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가을재배는 환경특성상 파종기 고온과 늦장마, 그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씨감자 부패율이 높아 생산성이 낮다. 또한 가을에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일본에서 도입된 “대지” 품종으로 전분함량이 낮고 환원당 함량이 높아 가공용으로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칩가공용 감자의 가을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씨감자의 형태 및 크기가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품종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고령지농업연구소 강릉시험지에서 실시되었다. 파종 시기는 2018년 8월 21일이었고, 재식거리는 75X25cm였으며, 수확은 11월 15일이었다. 비닐멀칭을 하지 않고 재배하였고, 재배방법은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방법에 준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품종은 당해 연도 6월 하순에 수확한 “새봉”, “고운”, “대지”였다. 가을재배용 씨감자의 형태 및 적정 크기를 구명하기 위해 절단씨감자(30-60g)와, 통씨감자(10-20g, 30-40g, 50-60g)를 사용하였다. 파종 후 90일경(11월 15일)에 수확하여 생육, 총수량, 생리장해 발생율, 가공성 등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씨감자 형태별로는 통씨감자가 절단씨감자보다 생육과 수량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통씨감자가 절단씨감자보다 파종 후 부패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봉”은 절단씨감자 이용 시 부패가 적었고, 출현이 빨라 통씨감자보다 수량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통씨감자는 크기가 클수록 생육과 수량이 모두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시험품종 모두 기형서 발생이 많았으나, 품종 간 및 처리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열개서와 중심공동은 “대지”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괴경비중은 처리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품종 간에는 차이가 뚜렷하여 “새봉”과 “고운”이 “대지”보다 높았다. 칩가공성은 “새봉”과 “고운”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사업(과제번호: PJ01361003201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주저자: Tel. 033-330-1662, E-mail. rosa2125@korea.kr